

◆ The Conditions of "Good Books"

# 良書의條件

梁 泰 鎮  
(國立中央圖書館 司書官)

## 序 言

人間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精神生活이라 한다면 思考力과 知識은 絶對的인 要件이라 하겠다.

思考와 知識을 要件으로 하는 根源的인 媒介體가 많은 類型의 形態 가운데에서도 그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인쇄물인 것이다. 特히 그러한 인쇄물 가운데도 그 生命力이 短時性인 것이 아니라 圖書와 같은 耐久性을 지닌 資料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우리의 知識生活에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圖書가 印刷術의 發達로 出版業의 不況을 論하면서도 엄청난 數字에 達하도록 그 量이 팽배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처럼 많은 量의 出版物을 고루 다 읽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뿐만 아니라 실형 읽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것을 읽어야 할 必要도 없다.

다시 말해 올바르게 選擇한 책은 適時에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讀書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標語를 내세운 미국도서관협회의 “적서(適書) 적자(適者) 적시(適時)라”는 슬로건 即 <The Right Book for the Right Reader at Right Time>의 예를 들것도 없이 讀書에는 自己 水準에 알맞는 책을 適時에 읽어야 함은 두말할 것 없다. 그렇다고 水準에 알맞는 책을 選擇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圖書選擇의 金科玉條가 될 수 있는 方案은 없다 하더라도 最少限의 基準을 세워 이를 善用함이 急激히 變遷해가는 時代에 適應해 나갈의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면 이러한 良書選定の 基準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대체로 우리는 良書를 選擇하는 方案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要素를 들 수 있겠다.

첫째 書誌學的인 要素

둘째 形態的인 要素

셋째 內容的인 要素

本稿는 이러한 세가지 要素中 內容的인 要素를 中心

으로 良書選擇의 基準을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一. 基本的인 評價基準

良書를 選擇하는데 가장 重視할 點은 讀書의 目的性을 우선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點이다.

그러면 讀書는 어떠한 目的을 위하여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讀書現象을 心理學的인 立場에서 보는 사람은 「讀書란 文字 文章을 通하여 間接적으로 體驗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 讀書를 社會的인 立場에서 보는 사람은 「讀書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方法 및 情報의 傳播現象이다.」라고 말한다.

教育學的인 立場에서 보는 사람은 「讀書란 內容의 理解증진이다.」라고 말한다.

讀書論에 대한 여러 論文을 두루 살펴보아도 讀者는 知識의 傳達, 精神生活의 鍊磨, 學問, 修養, 求道, 休養 등으로서 그 目的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讀書를 그 目的 利用度라고 하는 觀點에서 비추어서 分類해본다고 하면 크게 나누어서 다음 세가지 들 수 있겠다.

① 教養을 위한 讀書

② 知識習得을 위한 讀書

③ 娛樂을 위한 讀書

著作物의 內容의 價値判斷의 基準이나 圖書評價의 基準도 이 세가지 目的性에서 樹立해야 하며 良書의 選擇이라 하는 것도 이같은 세가지 點에 立脚하여 行하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勿論 이러한 세가지 要點의 限界도 매우 複雜하고 후택시블(Flexible)한 것으로 讀者의 態度 目的 如何에 따라 극히 데리케이트(Delicate)하다.

따라서 評價의 基準도 獨斷的으로 適用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偏見이 따르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評價基準에 좀더 부연하고 싶은 要素라고 한다면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의 價値를 주는 教養 修養을 위한 讀書로 이른바 영혼의 糧食으로서의 글인 精神함양을 위한 人生의 體驗擴充과 專門分野以外的 幅 넓은 教養을 위한 것등으로 宗教나 道德 倫理에 관한 것 등이 이에 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책들은 우리의 先賢들이 過去에 있어서 많은 體驗과 思索을 知識으로서 集大成한 것이 다.

우리들은 이러한 先人들의 業을 간접적으로 體驗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知識을 얻고 思考力を 키우고 좀 더 나아가서 先賢들의 眞理探究의 精神에 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精神力을 가장 많이 안겨주는 冊은 두말할 것 없이 古典을 들수 있겠다. 古典은 歷史的 社會的으로 數없는 變遷過程을 겪어온 不朽의 生命力을 지닌 著書들로 우리에게 許多한 영감을 傳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良書로서 教養을 위하여 古典의 名著들을 천거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령 聖書라든가 佛典같은 經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톨스토이 나 베르테의 傳記類, 톨스토이 人生論 등은 우리들의 精神世界에 깊은 영감을 주는 良書中的 良書라 할 수 있다.

인스피레이션적인 것과는 反對로 通俗적인 것은 單純한 레크레이션적인 立場에서 본다면 有用할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들의 健全한 精神世界를 오염시키는 作用을 하는 경우는 惡書로 指摘하지 않으면 안된다.

良書와 惡書를 區別하는 基準은 이치럼 우리들의 精神世界를 有益하게 하느냐 害롭게 하느냐에 따라 良書와 惡書를 區別하게 된다.

에머슨(Emerson)의 말을 빌리면 「비열한 사람과 함께 行動을 하면 人生은 온통 비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푸루다크 영웅전을 읽으면 世界는 진취적인 사람들만이 살고 우리의 주위에는 勇士나 軍神들이 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生의 의욕이 넘쳐 흐르는 世上인 것을 生覺케 한다」고 말한바 있지만 現代人의 讀書에 있어서도 教養을 위한 冊으로서 歷史類나 聖賢들의 著書 經典 現代의 哲人 예술가의 思想을 담은 冊들이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을 주는 冊이라 하겠다.

이러한 類의 著作物의 評價基準으로서 內面的으로는 創造力 힘찬 活力(vitality)眞實性 外面的으로는 表現에 있어서 作品의 깊이와 아름다움등을 要求하게 된다 우리가 知識을 體得함에 讀書가 重要하다함은 再論의 餘地가 없을 줄로 안다. 이러한 知識의 傳達을 主로 맡고 있는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주는 冊의 評價에 있어서도 內容面에서의 正確性, 資料의 信憑性, 著者の 立場을 固守하는 一貫性, 主題와 範圍의 適正性, 適時性, 形式과 取扱에 있어서의 妥當性等이 選擇의 基準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으로 娛樂이나 精神의인 慰安, 休養등을 위한 이른바 感情充足을 위한 레크레이션(Recreation)系의 冊의 評價基準으로는 表現의 平易點, 文學的 價値, 大

衆性, 藝術性등이 그 價値判斷의 重點이라 하겠다.

精神의인 慰安 休養을 위한 레크레이션(Recreation)系의 冊으로서 現代社會에서 가장 널리 못사람들의 愛好를 받고 있는 部類의 것으로 小說을 빼놓을 수 없는데 小說의 選擇 價値評價 基準을 다음 세가지로 區分하고 있다.

- ① Moral에 違背되지 않을 것.
- ② Humanism에 立脚할 것.
- ③ 理解하기 쉬운 것.

以上 세가지의 要因을 內包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以上 論擧한 바와 같은 內容의 評價基準의 可否도 圖書를 選擇하는 사람 곧 適書를 求하는 사람의 우수한 批判力 鑑賞力에 맡기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方法으로 그 理解力과 批判力 즉 그 內容의 良否를 識別하고 또한 讀書한 內容을 理解하고 批判하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없다.

다만 讀書 그 自體에 依하여 自然히 그 힘을 培養하는 以外에는 다른 道理가 없을 줄 안다.

이는 美術이나 音樂등의 藝術作品을 보고 듣는 鑑賞力과 꼭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即 많은 名作 名畫 名曲을 보고 들으면 들을 수록 눈과 귀는 저절로 그 作品을 더욱 잘 理解하고 鑑賞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問題는 그러한 過程에 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 즉 그러한 道程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극히 常識的이면서도 보편성을 띤 客觀的인 諸條件으로 內容 價値判斷 評價基準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에 對하여 좀 더 記術하여 보자.

## 二. 主題와 內容

먼저 主題와 內容에 對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主題는 明確한가?

主題의 主導的인 理念은 무엇인가?

副次的인 理念은 무엇인가?

主題는 內容을 一見하여 알 수 있는 것인가?

다음으로 著者에 대하여야 할 態도와 觀點은 어떠한가 하며 著者의 中心的 思想은 어떠한가?

대체로 著者의 中心的 思想은 著書의 序文이나 序論에 기재하거나 終章으로 結論이나 要約으로서 整理되어 있는데 優秀한 讀書人은 그 著者의 中心的 思想을 包含한 文의 일절이나 一章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는데 민감한 讀者로 要컨대 著者의 中心的 思想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選擇의 제일 要件이다.

未熟한 讀者들이 往往 겪는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했다」함은 讀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警句인 것이다 다음으로 著者의 思想性을 살펴보자 著者의 思想的

立場은 進步的인지 反動的인지를 살피나.

過激의 破壞的의 奇稿的의 厭世的의 懷疑的의 頹廢的의 敗北的의 思想의 著作物은 背擊해야 한다.

反面 建設的이고 明朗하고 民主적이고 合理的이며 肯定的이고 進步的이며 휴머니즘의인 思想을 取하도록 해야 한다.

倫理性은 바른 道德觀念에 올바른 社會的 正義感에 立脚하였는가를 살피는다.

內容의 眞實性은 實證的이나 論理的이나 獨斷的이나 를 또한 알아본다.

即 內容 하나 하나에 새로운 事實이나 見解에 대하여 그 眞實性을 追求하여 본다.

「이것은 果然 眞實이나 아니나?」

「왜 이런 事實을 記述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은 實證된 眞理나 또는 單純한 著者의 獨斷的인 것이나를 檢討한다.」

특히 社會學에 관한 著書에 있어서는 어떠한 眞實을 記述하고 있는가를 分別하는 것이 必要하다.

때로 眞實 그 自體를 기술한 것과 宣傳과의 差異點을 區別해야 하는데 이러한 判斷은 讀者 스스로가 判斷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讀者는 어디까지나 冷靜하고 批判的인 見解로 主觀的인 立場을 떠나 客觀的인 態度를 견지함이 必要하다.

이러한 態度는 自然科學分野에 있어서의 物理學書나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의 經濟學書등에서 그 例를 견주어 보면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記述에 있어서 方法論은 正當하며 새로운 것이나 또한 主題의 解決에 適切한가 適切하지 못한가 등을 살피는다. 取扱한 方法은 理論的이나 實證的이나 觀察이나 實驗이나 事實의 記述이나 意見이나 宣傳이나 啓蒙이나 教養을 위한 案內書이나 專門的 研究書이나 通俗的이나 고답적이나 入門書인가 獨創的이나 詳說이나 概論이나를 檢討한다.

主題의 範圍는 어떠한가?

設定된 問題에 대하여 全般的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나 部分的이나 資料는 어느 範圍까지 수집 參考하였는가?

取扱된 時代는 어느 때인 것이나?

歷史觀은 어떠한가?

어떠한 傾向 流派 主義 歷史觀을 지닌 著者인가를 批判的인 眼目으로 살피는다.

그 歷史觀이 保守的이나 反動的인 것이나 進步的이나 또는 革新的인 것인가?

主流派나 異端派나?

參考資料는 어느만큼 用活하였으며 出典의 範圍와 資料, 學術的 根據의 確實性如何否?

章節의 設定 및 結論의 記述方法으로 章節을 設定하는 方法이 內容을 가장 效果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인가 結論은 올바르게 整理되어 있으며 이로서 主題의 解決이되었는지 未解決인지를 살피 본다.

創作인가 編輯書인가 全編이 同一人의 創作인 新稿의 경우와 舊稿中에서 編輯에 依한 경우가 적지않으므로 舊稿 편집書이면서 創作執筆한 新稿인 것처럼 書名을 標榜한 것이 또한 적지 않다.

文藝創作集의 경우와 같이 「○○選集」이라고 書名을 부친 경우는 別다른 問題가 없겠으나 여기에 選集된 일편 일편의 內容이 確實히 그 作家의 代表作인지 아닌지를 檢討하여 본다.

同一人의 著作選集이 아니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以上의 著作을 同一 主題에 關聯하여 편집한 경우도 近來에는 많아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집 기획자의 資格 適否가 第一條件이며 편집 기획을 세우는 方法如何가 그 內容의 良否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因이 된다.

이러한 事實을 미루어 「편집도 創作이다」라고 말하는 出版製作者의 特性을 概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번역서에 대하여 살피보자.

번역서는 原著者 原典名 發行年度가 確實한가의 여부와 註解題 著者의 經歷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번역은 原典으로부터의 完譯인지 아닌지 重譯인가 抄譯인가를 살피고 選擇에 있어서 重譯이나 抄譯은 피하여야 한다.

번안물은 오늘 날에도 아동도서에 많은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同一 原者에 대하여 二重以上의 번역물이 있을 경우에는 譯者의 適否 譯文의 優劣을 比較 研究 檢討하여야 한다.

또한 譯文에 대하여서는 多少 오래된 것이라도 名譯이라는 定評이 있는 것을 擇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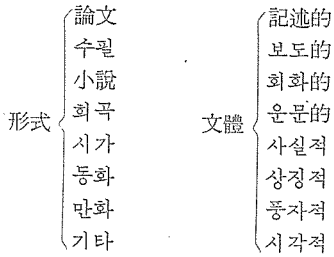
類似書와의 比較檢討는 같은 類의 主題를 取及한 다른 著作物과의 比較에 依하여 이제까지 發表해온 것을 여러 角度로 檢討 分析하여 適書를 選擇하도록 해야 한다. 同一類의 著作物을 客觀的인 立場에서 比較檢討함으로써 著者가 무언가 獨創性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單純히 他作品에 실린 思想을 참된 理解도 없이 糊塗하고 있는지의 眞否는 웬만큼 檢討해보면 알 수 있다.

### 三. 表現的 要素

여기서 論하는 書冊의 表現的인 要素란 著作物 그 自體가 가지는 바의 表現 形式의 條件을 가리킨다.

일찍기 푸르레타리아文學論이 流行하던 時節 “內容이 形式을 決定한다”고 하는 論旨에 대하여 形式主義 藝術論을 提唱하여 形式優位를 부르짖은 때도 있었으

나 內容과 形式은 一身同體의 兩面으로서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小說類나 論文 수필에서도 다를바 없다. 하나의 內容을 가장 알맞게 效果的으로 表現하는데 形式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良書란 훌륭한 內容의 要素가 完全한 構成下에서 가장 效果的인 形式과 가장 우수한 文體를 가지고 具象化되고 表現되어진 책인 것이다.」 이제 評의상 表現의 要素를 形式과 文體를 나누어서 考察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圖式이 될수 있을것 같다.



이러한 形式은 語句에 있어 바른 語句를 使用하고 있으며 漢字는 常用漢字를 썼으며 표준어로 되어 있는가?

方言 隱語 古語 雅語 死語 新語 流行語 등이 지나치게 使用되어 있지 않는지? 外國語의 使用은 빈번하지 않은지?

外國語도 外來語로 土着化된 것은 좋으나 雜多하게 外國語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自己流의 난해한 語句를 無理하게 使用한 獨善的인 文章은 아닌가?

兒童物에 있어서는 國語教科課程에 依한 어휘가 使用되어져 있는지를 살핀다. 文章은 읽기 쉽고 平易한 文章을 第一로 하며 冗漫한 것은 좋지 않다.

著者が 지닌 個性의 強度라든지 內容의 複雜性때문에 難解의 著作을 이루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할지라도 故意로 晦澁難解한 文章을 驅使하여 著者의 思想을 深遠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擬裝名文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文法的으로 잘 짜여진 文章인가?

作家들 中에는 文法을 어느 程度 無視한 文章의 特性을 가지고 個性的인 作品을 써 존경을 받는 이도 없지 않지만 극히 例外的인 일이므로 이러한 文章類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文章의 길이는 筆者의 健康 심장의 強弱 呼吸의 長短에 正比例된다고 말하는데 文章은 짧은 것이 더욱 意味가 明瞭하며 너무 긴것은 要點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뜻이 明確하지 않다.

다시말해 너무 긴 文章은 한번 읽어서 理解하기 어려우며 그런 文章은 피하여야 한다.

文體는 主題와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 冗舌한 것보

다는 간결한 文體를 擇하여야 하며 生硬한것보다는 平易하고 新鮮한 文體가 좋다. 個性이 있는 文體를 擇한 이 좋은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名文이라는 것도 洪코 美文은 아니다. 內容과 文體가 적절하게 合致하여 文章의 行文마다 은은한 幽默니티가 느껴질때 비로소 名文으로서 讀者들의 심을 울리고 이른바 「文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實感케 한다.

#### 四. 構成的 要素

冊을 選擇할 경우에 讀者는 于先 이 책은 무엇에 대하여 쓰여 있느냐? 저작자는 어떠한 立場을 固守하고 記述하였는가? 어떠한 方法으로 어떤點에 主眼을 두고 著述하였는가를 識別해야 하는데 冊을 選擇하는 過程에 있어서 內容을 바르게 理解하고 圖書의 良否를 檢討하는데 構成的 要素는 빠트릴 수 없는 重要한 部分이다. 어떠한 冊에도 序文 目次는 다 있으며 學術的인 것에는 注 參考文獻 索引등이 있다.

이것을 하나 하나 檢討하는 것으로서 이 冊이 良書인지 아닌지를 어느程度 판단할 수 있다. 即 冊의 良否는 궁극적으로 精讀을 하고난 뒤에야 비로소 價値判斷을 내릴수 있는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構成的 要素를 검토하는 것으로도 어느 程度의 常識的인 判斷은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포메이션을 위한 圖書의 選擇을 하는 경우 冊의 構成形態는 重要한 評價의 要素로 되어 있다. 가령 序文 緒論 跋 目次 附錄 注 參考文獻등은 著述의 目的 立場 研究方法 研究範圍 構造 組織등을 보인다는 點에 있어서 인포메이션을 주는 類書의 冊에 있어서는 더욱 커다란 意味를 가진다.

이를 項目別로 나누어 詳述하여 보면 먼저 序文을 들 수 있다.

序文은 著者が 意圖하고 있는 目的과 主眼點을 밝히고 讀者에게 要望하고 싶은 바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序文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包含하는 것이 通例이다. 即 著者의 傳記 研究經歷 理想 抱負 著述의 目的 立場 研究의 方法論 研究의 基礎資料 參考書誌 取扱한 範圍 著述의 主理念 副理念 著書의 活用法 읽는 方法의 順序등 또는 主題의 歷史 및 研究史 問題의 性質 內容 發展 및 所在學界의 현황 將來의 方向등을 記錄한 것 등이다. 또는 第三者의 추천문을 가지고 序文에 대신하고 別度로 自序를 附하는 이도 있다.

古典의 경우는 解題를 가지고 序文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跋文과 解題를 卷末에 두어 序文의 一種과 같은 形式을 取하는 경우도 있다.

紹介 추천 解說 考證 感想 追憶의 類를 記述한 것과

第三者가 쓴 경우 序文은 著者보다 年上인 경우가 많으나 跋文 解題는 年下의 사람 후배의 경우에 使用한다. 凡例는 著書의 利用上 注를 記錄한 것으로 構造組織 記載例 略號 引用書의 부호를 記하는 것이다.

目次는 그 著書의 構造 範圍 著者의 力點을 보여주는 骨格이다. 目次順을 보면 著書의 內容을 대략 알 수 있다.

目次는 冊의 良否를 가름하는 重要한 兪쇠이다. 目次로서 그 著書의 內容을 有效하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게되고 目次는 적당한 길이에 精密하게 기술해야 한다. 어느 程度 內容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目次가 全然 없는 冊은 讀者에게 不親切한 冊이라는 印象을 拭을 수가 없다. 또한 目次를 卷末에 부쳐 索引의 代用으로 되어진 것도 종종 있으나 이것도 不便한 것이다.

注에는 頭注 脚注 章 節末의 注 卷末注등이 있다. 卷末注에는 그 活用に 一長一短이 있다. 詳注는 獨立的으로 卷末에 두고 卷末注의 一種에 解題 解說著者의 紹介 本文의 解說등을 記한다. 삼도 사진 지도 도표 등의 色數 크기 位置 性質에 대하여 살펴 보면 歷史書나 地理書 미술 도감류에 있어서는 도판의 인쇄적 효과가 바로 評價의 基準이 된다. 年表 年譜는 歷史類의 研究書 개론서등에는 年表가 있는 것이 좋으며 특히 傳記 評傳에 있어서는 年譜의 有無를 그 圖書의 良否에 대한 評價를 左右한다.

다음으로 索引의 種類와 그 索引이 完全한 것인가 아닌가를 檢討한다.

索引은 대체로 가나다順 ABC順 索引이 보통이나 人名索引과 事項索引과는 別度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參考文獻에 있어서 索引의 有無는 良書의 評價 基準에 決定的인 意義를 갖는다.

以上으로 冊의 構成的인 要素의 檢討를 끝내고자 한다.

### 結 語

두번 다시 읽을 價値가 없는 책은 한번도 읽을 必要가 없다는 릿켈트(Richert Heinrich 1863-1936)의 말

과 같이 良書의 基準을 單 한번만 읽는 것으로 足한 것인가 또는 몇 번이고 反復하여 읽을 價値가 있으며 읽고 싶은 冊인가를 判別하는 이도 있다. 如何든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그속에서 새로운 意味와 아름다운 點을 發見하게 되면 이 冊은 良書로 보아 틀림없을 줄로 안다.

要컨데 冊의 內容은 그 冊의 良否를 決定하는데 根本的인 要因이 된다.

前述한 形式的 要件이나 構成的 要件은 內容의 價値 判斷 基準에 副次的 第二義의 條件으로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西歐에서 出刊되는 著作物中 때로 有名한 作家의 作品은 製册面에서 훌륭한 點이 많으나 대체로 新人들의 作品 거의가 例外없이 호화양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形式的 諸條件의 識別이 자못 순간의 讀書意慾을 자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勿論 보는 이에 따라서 冊의 良否를 決定지움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BIBLE이라 할지라도 無神論者의 立場에서 보는 見解와 信者의 立場에서 보는 見解는 달리할 수 가 있을 것이다. 要컨데 觀點을 달리하는 思想 著作에 대 하여서는 그批判이 各人各色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適書의 概念을 相對的 立場에서서 學問分野別이든 常識的인 面에서든간에 內容의 要素와 形式的 諸條件을 구비했다면 그 冊의 良否를 가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 바이다.

### 參 考 文 獻

讀書論	龜井勝	旺文社
讀書論	小泉信三	岩波書店
速讀法	佐藤泰正	旺文社
讀者の世界	外山滋比古	角川書店
編輯マニュアル	沃田和雄 共著 竹內忠雄	文化社
學問論	田中美和太郎	範疇書房
參考調査法	長澤雅男	理想社
本の中の世界	易川秀樹	岩波書店

## 「도 협 월 보」 원 고 모 집

본 월보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음과 같은 內容의 글을 每月末日까지 事務局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1. 圖書館學 및 實務에 關한 論文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會員通信에 關한 消息
3. 圖書館과 關계되는 隨筆 또는 手記
4. 其他 本 月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글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